이번주 묵상



아래의 묵상 질문들을 활용하셔서 들었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 1페이지의 이번주 말씀 요약과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1-13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2. 성도는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하며, 내 안의 육신과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번제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억울한 일이나 갈등이 올 때도 내 안의 육신을 죽이는 기회로 삼을 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거나 억울하게 공격할 때, 본능적으로 보복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내 안의 육신(복수심, 자존심)을 발견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기회로 삼은 적이 있나요? 최근 겪은 갈등 속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3. 묵상한 말씀을 통해 격려가 되었던 말씀이나 소망을 품게 된 말씀을 아래에 간단히 적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후에 2페이지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삼성교회 연락처

+82 02-2293-4421

http://samsungch.or.kr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0분	3층 예배실

나성교회 연락처

+1 562-690-7979

https://nasungchurch.org

information@nasungchurch.org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126호

삼나소식

삼성교회 나성교회

2026년 9월 27일 SAMSUNGCH.OR.KR 126 호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창세기 22장 1 - 13절

날짜: 2026.9.13.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창세기 22장 본문은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번제란 제물을 칼로 잡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불에 태워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100세에 주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극한의 시련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중대한 일을 아내 사라를 비롯한 혈육과 의논하려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사라가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리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허락할 리가 없고, 가정에는 걷잡을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혈육과 전혀 의논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곧바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인간적인 계산이나 육신의 정에 매일 때 결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함 없이 즉각 순종할 때 비로소 성취됩니다.

세상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질 세계와 육신의 세계인 '1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는 '2층' 영의 세계로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이제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며, 거듭난 자는 이 세상 백성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2층에 올라온 영의 사람들은 육신대로 살 수 없고, 오직 영을 좇아 살아야 합니다.

영으로 이미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육 간에 이미 완성된 존재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함이었고, 완성된 이후에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서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시옵소서"라며 무언가를 달라고 비는 것은 성도의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내 죄를 씻고 질병을 고치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주님을 내 안에서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자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가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구약의 화목제물은 콩팥과 기름은 불태우고 가슴(사랑)과 뒷다리(능력)는 사람이 나누어 먹었지만, '번제'는 사람이 얻어먹는 것 없이 전부를 불태워 하나님께 온전히 올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존재 전체가 오직 주님만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을 나타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려 애쓰면 주님은 주무시지만, 내 지식과 감정을 포기하고 내 영 속으로 들어가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잔잔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억울하게 공격할 때도, 보복하려 하거나 감정적으로 맞받아치지 말고 즉시 그 순간 내 안에서 치밀어 오는 복수심과 육신의 본성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의 이 육신을 죽이시려고 그 사람을 연출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선포하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비로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의 환난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글자로 외우는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순종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신앙 성장의 궁극적인 결과는 바로 '번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 안에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매일 믿음으로 의에 이르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해당 설교의 전체 영상은 오른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교 회 후 원

우리은행
1005-602-532517
예수교대한웨슬레회삼성교회

중보기도

교회 공통 기도제목

- 삼성교회와 나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삼성교회와 나성교회 사역자들(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윤성한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 될 수 있도록
- 삼성교회와 나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중국 길연교회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전국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허금용 집사(모세선교회) - '심낭삼출(심장을 둘러싼 막에 수분이 쌓임)로 인해 복통과 발열, 혈압상승으로 입원 중입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아영 사모 - 자궁선근증으로 인하여 자궁을 적출(개복)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양희 집사(한나선교회) – 심장 판막 수술과 그로 인해 발생된 부정맥 수술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최희정 집사(한나선교회) – 남편(강재규) 알콜성치매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복과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옥경 집사(한나선교회) –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현숙B 집사(2여선교회) –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귀에 통증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신자 집사(한나선교회) - 자녀들(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권오중 집사(3남선교회) –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근 열로 인한 다리 부종이 심하다고 합니다.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이상문 집사 (모세선교회) - 파킨슨 치료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 김묘자 권사 (모세선교회) - 폐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
- 김세훈 장로 (여호수아 선교회) -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후유증과 회복을 위해.
- 유니스 안 (4,5여선교회) -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안현숙 권사 딸)
- Lee, Miriam (에스더 선교회) - 난소암과 대장암 수술을 함께 받았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 김학철 목사님 - 대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 한아림 자매 (청년회) - 난소암 수술 후유증 회복을 위해
- 김상준 형제 (4,5남선교회) - 위암 수술후 항암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이시용 장로 (모세선교회) - 패혈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조연경 형제 (여호수아선교회) - 방광암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홍옥봉 권사 (모세선교회) - 오른쪽 어깨 탈골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통증감소과 회복을 위해.
- 이수영 장로님 - 무릎 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와 통증회복.
- 송제인 집사(1여선교회) -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빠른 회복과 남은 치료를 위해, 병원 비용이 보험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 박관서 형제 (모세선교회) - 알츠하이머와 근육소실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 심순근 권사 (모세회) - 폐 염증이 심하고 호흡이 어려우신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 김풀리 자매 (제3여선교회) -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김영자 집사 (모세회) -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최지민 자매 (1여선교회) - 유방암과 림프 전이 및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해.

이번주 구역모임

- 본문: 창세기 33장 1 - 10절
- 해당 설교는 오른쪽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구역 모임 전 미리 설교를 듣고 모임에서 구역원들과 아래의 설교 요약을 다시 읽으며 은혜 받은 내용을 서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에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주인(하나님)이 되어, 내 열심과 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를 이루어내려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 힘으로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력이 다 끊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 것처럼, 내 안의 의와 열심이 완전히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의 신앙생활 중 '내 열심과 노력(이스마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다 지치거나 한계를 느꼈던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2.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절뚝발이"로 만드십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인간적인 꾀로 살려고 했던 것처럼 인간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지혜와 세상적 수단을 의지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육신적 소망과 꾀를 꺾어버리기 위해 얍복 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시며 환도뼈를 쳐서 절뚝발이로 만드셨습니다. 이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도망치거나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오직 주님께 항복하고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의 매입니다.

영적으로 절뚝발이가 되었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완전히 넘겨드린다는 뜻입니다. 현재 내 삶에서 여전히 내 힘으로 붙들고 있어 꺾여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3.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우리를 더 빨리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괴로운 환경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아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하고, 세상 헛된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벧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반석이 끝까지 따랐듯, 하나님은 우리가 방황할 때도 우리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현재 겪는 고난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빨리 예수님과의 깊은 연합으로 이끄시는 가장 유익한 도구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힘들고 원망스러웠으나,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였다고 깨닫게 된 고난이나 환경이 있습니까?

주간일정

삼나소식 모바일

http://samsungch.or.kr/samnanews